

이슈브리프

No. 2025-40

북한의 2025년 군사활동 평가: 9차 당대회 예측과 우리의 대응

양 욱

연구위원

2025-12-23

2025년 북한은 핵전력의 실전적 능력과 군사력의 해외투사를 과시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여 군사 분야의 치적을 국가적 역량으로 완성시켰다는 서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성과들이 조선노동당 80주년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최대 우방이자 후원국인 러시아와 중국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북한은 보여주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로 충분한 실전적 역량은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화성-20 ICBM을 내세우면서 대미 타격능력의 완료를 암시하고자 했으나, 실제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 정찰위성 4기체제 구축에 실패하여 스스로 표적을 결정하는 실전적 핵태세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전술핵탄두도 실증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북한은 단거리 타격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였고, 우크라이나 참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반도 내 위협을 증가시켰다.

북한은 2026년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두국가관계론'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뛰어넘는 군사역량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핵보유국과 지역강국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추구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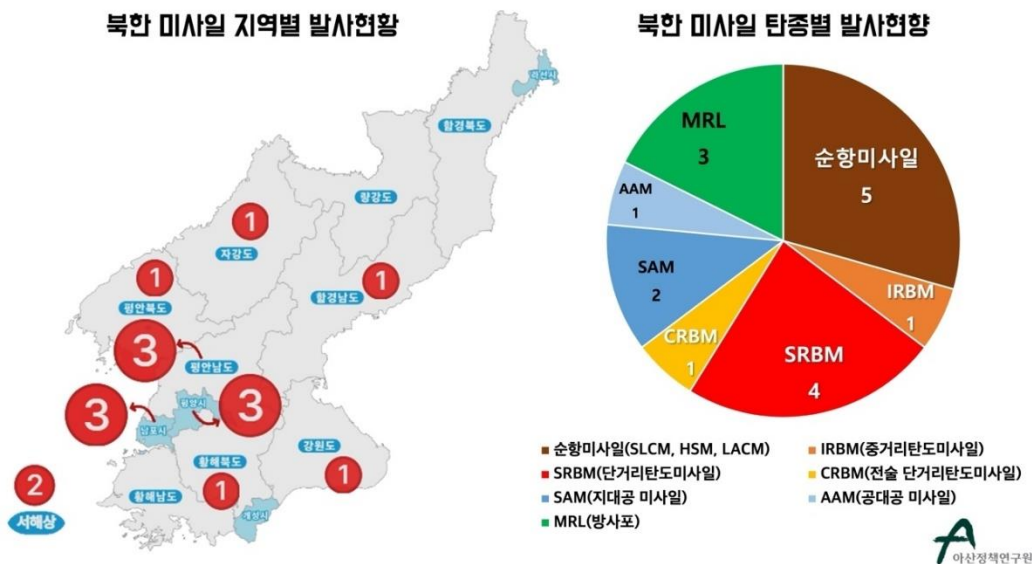
보인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도 역내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에서의 역할 확대로 동맹안보와 집단안보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와 역내 안보를 연결하여 대응해야 한다.

2025년의 북한 군사활동

2025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나 한반도 내의 군사적 도발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이외의 군사활동으로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보인 활약 때문이었다. 김정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중-러의 권위주의 삼각연대라는 외양을 만들어 전 세계에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공식적인 시험발사는 2025년 동안 17회에 불과했다.¹ 여기서 공격용 대량살상무기에 해당하는 미사일 발사만을 추려내면 11회, 핵투발수단의 발사는 8회로, 전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이다. 이렇듯 시험발사 회수가 감소한 것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에 역량을 집중한 탓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8차 당대회 이후 계획했던 미사일 개발 일정이 대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횟수가 극적으로 감소한 원인은 미사일 재고나 관련 자원의 한계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 2025년 지역별 탄종별 미사일 발사현황



최신무기의 개발은 2025년에도 이어져, 신형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은 물론 신형 함정들까지 등장했다. 2025년에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2종이 새롭게 공개되었는데, 화성-11마와 화성-20이다. 화성-11마는 화성-11가(KN-23)의 1단 추진체에 화성-16나의 극초음속활공체를 결합한 단거리 극초음속미사일로, 촘촘해진 KAMD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² 한편 북한은 9월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방문을 앞두고 화성-20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ICBM의 개발 사실을 알렸다. 2024년 북한은 화성-19를 시험발사하면서 ICBM의 최종완성형이라고 선언했지만, 단 1년 만에 새로운 ICBM을 제시했다.³ 그러나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또 다시 신형 ICBM의 모형을 제시하고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개발이 실제로는 한계를 맞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5년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해군력의 급격한 증강이다. 북한은 5천톤급 구축함과 함께 원자력 추진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략 잠수함을 공개했다. 특히 단기간 내에 실전 배치를 강조하던 북한은 건조한 2번함이 진수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단 1개월 만에 선체를 수리했음을 과시했다.⁴ 이는 실제 해양군사력 건설보다는 전력화의 외양에 집착하고 있는 정권의 성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군력 증강은 북한이 해양의 전략적 활용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를 수중과 해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확장함으로써 핵무기의 생존성을 더욱 높여 제2격 능력(2nd strike capability)을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무기개발보다 더욱 큰 성과는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파병이었다. 2024년 10월 첫 파병이 확인된 이후 북한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어 초기에는 대규모의 희생을 기록하며 졸전을 벌였다. 2025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쿠르스크에 대한 2차 공세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저항거점인 수자(Sudza)시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지역 탈환의 선봉장으로 큰 기여를 했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러우전쟁 참전과 전과를 공개했고, 북한도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참전을 국가적 성과로 포장했다.⁵

보다 중요한 쟁점은 이러한 군사활동이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외양과 해외파병을 통한 군사력 과시를 통해 북-중-러 3각의 권위주의 연대를 구성했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과 푸틴과 함께 권위주의 연대의 주요지도자로서 위상을 과시하면서 북-중-러 연대가 실존함을 과시했다. 이후 실시된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종리의 2인자가 참석함으로써 북한의 위상 설정이 일회성의 행사가 아님을 보여주었다.⁶

8차 당대회 시기 목표의 달성 여부

2021년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실전적인 핵태세를 갖추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⁷ 특히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중심으로 개발에 나서 단기간에 한반도 내 타격전력을 갖추었다. 북한은 주요한 핵무기들은 대부분 이미 2024년까지 개발과 시험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표 1]는 국방력 발전계획의 완료를 평가한 것이다.

[표 1] 8차 당대회 시기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완료 여부

주요사업	세부 내용	개발/ 시평	실전 배치	실질평가*		
				하	중	상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핵무기 개발	'화산-31' 핵탄두	△	X			
	'화성-11'계열 SRBM	○	○			
	'화살' 순항미사일	○	△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공개된 사업 없음	X	X			
	핵 양산능력 과시	○	△			
15,000km 사정권안 명중률 제고	다탄두 시험	○	X			
	'화성-17' ICBM	○	△			
	고체연료 ICBM	○	X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액체연료 극초음속미사일	○	△			
	'화성-16가/나'	○	△			
	'화성-11마'	○	X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형 ICBM 개발	'화성-18'	○	X			
	'화성-19'	○	X			
	'화성-20'	△	X			
	'김군옥영웅함'	△	X			
	원자력추진잠수함	△	X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북극성-5’ SSB	△	X	
	‘해일’ 계열 핵어뢰	○	X	
군사정찰위성 운용	‘만리경’ 정찰위성	○	X	
500km 전방중심 정찰 무인정찰기 운용	‘샛별4’	○	X	
	‘샛별9’	○	X	

(X 미완료, △ 중간단계, ○ 완료, *실질평가는 필자의 정성판단임)

우선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에 관해서는 ‘화성-11’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6종과 ‘화살’ 계열의 순항미사일 5종을 개발하여 상당 부분 실전배치 한 반면, ‘화산-31’ 전술핵탄두는 공개하였으나 시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은 무려 5종의 미사일이 시험평가를 거쳤으나 현시점에서 실전배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ICBM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8, 19, 20 3종을 개발했지만,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 달성의 검증은커녕 가장 최신형인 화성-20는 시험평가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ICBM의 명중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탄두를 채용해야 하는데, 한 차례 시험이 있었으나 역시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다.⁸

핵무기의 운용범위를 확장하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해양 핵전력 배치도 5개년 계획의 목표였다. 수중핵무기로 ‘해일’ 무인수중공격정 3종과 ‘화성-11’ SLBM을 시험발사 했다. 2023년 9월 진수한 미사일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은 재래식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핵잠수함’으로 평가하면서 계획상의 목표 달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5천톤급 구축함의 잇단 진수와 함께 전략원잠(SSBN)의 개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실제로 ‘핵잠수함’을 건조함으로써 목표를 일부 달성했음을 과시했다.⁹ 특히 단기간 내에 잠수함 선체를 건조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폐기하려는 원잠으로부터 추진체계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¹⁰ 이는 우크라이나전쟁 참전의 대가로 원잠 기술과 장비를 받은 거래의 결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핵표적을 스스로 지정하고 타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반도 전구에 대한 정찰능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정찰위성으로, 2023년 두 차례의 실패 끝에 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김정은은 위성 4기 운용체제를 선언했지만 2024년 한 차례의 발사 실패 이후 위성 3기에 대한 추가발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¹¹ 한편 무인정찰기로는 샛별4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샛별9 중고도 다목적무인기를 개발했으나,

플랫폼만 작동할 뿐 실제 정찰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이 러우전쟁 사례를 들어 무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폭드론이 빠른 시간 내에 배치되면서 군사적 위협으로 대두되었다.¹²

이렇듯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대부분 목표를 외양상 달성했다. 제시한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심지어 작동하는지 여부는 무시하고, 일단 모크업이나 플랫폼 단계까지는 이르렀다. 따라서 8차 당대회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북한이 추구해온 군사력은 외양과 형식에 치중하는 명목적 전력이다. 그러나 애초에 핵무기가 상대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결심을 위축시키기 위한 인지의 무기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전력건설은 의도한 대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2026년 전망: 핵-재래전력의 병진과 한반도를 넘은 군사력 투사

북한은 실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8차 당대회의 국방목표들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평가를 토대로 9차 당대회에서는 핵보유국 지위와 두국가관계론, 재래전력의 현대화, 그리고 핵-재래전력 통합이 핵심 군사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즉, 북한은 핵무력의 질적·양적 확장을 바탕으로 재래전력을 현대화하고, 이를 핵과 결합한 '통합된 핵태세'로 제도화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억제뿐 아니라 중러 연대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의 대외적 투사능력 제고를 목표로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전술핵 능력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9차 당대회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 능력의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전략핵과 관련된 시험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향후 전략핵 개발은 8차 당대회 시기보다 더 명확한 일정표를 가지고 추진될 것이다. 전략핵 능력의 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제2격 능력을 보장할 전략원잠과 SLBM 전력이다. 북한은 신형 엔진을 장착한 '화성-20' 고체연료 ICBM을 시험발사하면서 본토 타격에 필요한 추진력을 갖추고, 극초음속활공체를 탑재한 미사일들의 시험발사를 반복함으로써 다탄두의 재진입 및 독립목표 타격능력 확보에 나설 것이다.

제2격 능력 역시 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강조할 분야이다. 2025년 공개된 전략원잠 선체는

북한이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체계를 이미 확보했거나, 최소한 상세한 기술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에 착수했음을 시사한다.¹³ 건조 기간이 순조롭다면 2~3년 내 진수도 가능하지만, 첫 원자로 탑재 잠수함인 만큼 시험평가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실제 작전배치는 2030년대에 이를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군옥영웅'함이 이러한 공백을 메꿔야 하므로, 9차 당대회 이후 동함의 취역과 시험절차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과 전략핵 능력이 더해지면 북한의 핵교리는 더욱 과감해질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22년 핵무력정책법에서 선제타격과 자동보복을 핵운용 원칙으로 포함시켰지만, 9차 당대회에서는 핵사용 조건을 한층 더 낮추며 사실상의 '상시 핵위협'을 제도화하려 할 것이다. 특히 '두국가관계론'에 근거하여 한국을 더 이상 같은 민족 공동체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낮아진 핵문턱(nuclear threshold)을 기반으로 대남 핵협박을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실전적 태세를 갖추려면 북한 스스로가 핵표적을 선정하고 감시할 능력이 중요하며, 정찰위성을 모두 올려 독자적인 우주기반의 정찰감시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핵전력이 상대적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북한은 재래전력의 현대화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다. 러우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을 통해 재래식 전력의 취약성과 미래전의 양상을 직접 경험한 북한은, 이제 '핵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핵이라는 우산 아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운용하여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려 한다. 이는 곧 북한판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핵-재래전력 통합)로 구체화될 것이다. 북한은 이중목적무기체계(dual purpose weapon system)—핵탄두와 재래탄두를 병행할 수 있는 무기—의 수를 늘려 실제 사용할 무기가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공포를 조성하려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작전급 자폭드론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상대방의 통합방공망과 미사일방어망을 소진시키는 전술을 적극 채택할 것이다.

북한의 CNI 고도화는 지상에만 머물지 않고 해양에서도 전개될 것이다. 북한은 전략원잠 개발에 더하여 5천톤급 '최현'급 구축함 2척을 매년 추가 건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¹⁴ 이를 핵투발 플랫폼으로 활용해 한국 해군뿐 아니라 미 해군 항모전단의 접근을 제한하는 A2AD 작전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북한은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다양한 핵무기의 시험발사를 실시하면서 기습적 공격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해양전력이 중국 해군의 A2AD 전략과 결합될 경우, 북한은 중국의 반(反)인테 전략을 보조하는 지역 내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본토 타격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로서, 대만 유사사태를 포함한 동북아 위기국면에서 중국과 전략적 공조를 꾀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9차 당대회를 통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동북아 및 인태 지역 개입능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 해외 군사력 투자를 논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냉전기 북한은 '혁명수출'이라는 이름으로 무기·군사교관 수출을 활발히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러우전쟁 참전을 통해 경제적 실리와 군사기술 발전, 국제적 위상 제고까지 동시에 경험한 북한으로서는, 핵강성대국으로서 중국·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권 결속을 강화할 정치적 기회뿐만 아니라 수출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선 영역 확장에 대응

북한의 전략이 변화하면 우리의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 북한은 체제 생존과 한미동맹 대비 전력열세 극복을 위해 핵 개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왔다. 이제 핵능력이 확보된 이상 북한은 핵으로 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고, 러우전쟁 참전이나 '두국가관계론'의 담론 형성도 결국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현재 북한의 전략기조는 핵에 기반하여 철저한 대남 및 대미 거부전력을 형성하고 남은 역량을 해외로 돌려 이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유보적인 태도 속에서 한국 사회는 자강(自強)과 동맹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흔들리면서 갈등을 표출해왔다. 고압적인 미국의 태도와 조건부 안보공약에 대한 피로감은 여론을 자강으로 이끌지만, 당장 가능한 해답은 여전히 동맹의 틀 속에 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동맹을 통한 안전보장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매번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전작권 조기 전환, 원잠 획득,¹⁵ 한국형 3축체계 등 독자적 타격 및 방어체계 강화 등 자강의 레퍼토리가 만능 해법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조정이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은 그 자체로 해법이 아니라, 보다 큰 전략 구도의 일부로 위치할 때 의미를 갖는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전략과 연합지휘구조, 핵·재래전력 운용개념의 조정이 동반될 때 의미가 있으며, 단지 '자존심

회복'이나 정치적 상징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원잠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략원잠 위협과 역내 해양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해양전략 속에서, 비용·위험·동맹정치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전력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기존의 획득전략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우선순위와 사업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해외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규제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두국가관계론'과 비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선언에 대응하여, 한국은 더 이상 북한을 '잠재적 통일의 상대'라는 규범적 틀에만 가두어 볼 수 없다. 북한은 스스로를 적대적 핵보유국이자 역외 군사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억제전략도 '한반도 내부의 급변사태' 중심에서 '핵을 보유한 적대국이 역내·역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렬해야 한다. 이는 한미 확장억제 체제와 한국형 3축체계,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모두 동북아 및 인태 차원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다.

둘째, 전력 측면에서는 북한이 CNI로 추구하는 핵그림자 전략에 상응하는 우리의 '반(反) 핵그림자(Anti-Nuclear Shadow)' 전략이 요구된다. 북한이 이중목적무기와 자폭드론, 장사정포·미사일·사이버·우주전력을 통합하여 단계적·혼합적 공격 옵션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응하는 복합 억제·방어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다층·대량 요격이 가능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② 드론·순항미사일·저고도 탄도탄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통합방공망, ③ 위성·무인기·지상·해상센서를 연동한 상시 감시·표적화 체계, ④ 분산·생존성 높은 지휘통제(C2)·군수 인프라 등이 우선순위에 올라야 한다. '몇 척의 대형 플랫폼'보다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체계'가 더 중요해지는 국면이다.

셋째, 북한의 '해외투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상상 속 시나리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북한군의 러우전쟁 참전과 'NK방산' 수출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이는 향후 중동·아프리카·동남아 등지로 확장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방산 네트워크가 우리의 수출시장과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방산·안보협력을 한층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유엔 제재의 이행 강화를 넘어, 북한제 무기와 용병이 분쟁지역에서 미치는 파괴적 효과를 '규범적 의제'로 만들어 국제적 압력을 유지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획득전략과 해양 대응전략을 재구성하여, 우선 해외로 투사할 수 있는 부대구조와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전략원잠과 최현급 구축함 등 해군

핵전력을 앞세워 동·서해에서 A2AD 구상을 추진한다면, 한국 해군은 다층적인 대잠전·대함전 및 통합방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원잠도입보다 먼저 취할 조치는 ① 장거리 대잠초계기와 해상초계무인기 확대, ② 해저감시체계(SOSUS¹⁶ 수중센서망)와 기동식 대잠전력의 결합, ③ 연합 해상작전계획과 한·미·일 정보공유의 일상화 등이 있다. 이는 중국 해군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역내 해양억제' 차원의 구상이어야 하며, 북한을 중국 반인태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고착시키지 않기 위한 외교적 관리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의미를 갖는 것이지, 북핵억제에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안보에서 자강과 동맹을 대립적으로 상정하는 담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재래전력 통합과 역외투사를 통해 정치·군사적 지렛대를 늘려갈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동맹 속 자강'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독자적인 정찰·타격·방어능력을 강화하되, 이를 한미 확장억제 구조와 한·미·일 협력구도 속에 정교하게 결합시키는 방향이다. 전작권 전환과 같은 민감한 의제도, 연합방위태세의 실질적 강화와 핵위기 관리능력의 향상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져야 한다.

결국 2026년 9차 당대회는 북한이 '핵보유국이자 역외 군사행위자'로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북한은 완성된 군사력을 전제로 전략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능력을 외교·심리·연대 효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명목적 전력을 과시하며 스스로를 핵강국, 지역강국으로 연출할 것이지만, 실제 역량과 구조적 제약 사이의 괴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과제는 이 괴리를 냉정히 분석하면서, 북한의 과시를 과소평가해 위기를 자초하지도, 과대평가해 과도한 공포와 무분별한 군비경쟁으로 흐르지도 않는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인태를 관통하는 새로운 군사환경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상상력과 정책 선택의 질이 북한의 명목적 전력을 실질적 위협으로 전환시키는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고정시키는지를 가를 것이다.

저자

양욱 박사는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전문가로서 20여년간 방산업계와 민간군사기업 등에서 활동해왔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사기업 중 하나였던 인텔엠티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운용했다. 회사를 떠난 이후에는 TV와 뉴스매체를 통해 다양한 군사이슈와 국제분쟁 등을 해설해왔으며, 무기체계와 군사사에 관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해왔다.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연구위원이자 WMD 센터장으로 북한의 군사전략과 WMD 무기체계를 분석해왔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참, 방사청, 육/해/공군 등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북한의 군사동향과 현대전쟁에 관한 연구를 계속 중으로,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군사혁신론과 현대전쟁연구 등을 강의하며 각 군과 정부에 자문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¹ 2025년의 발사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회수	일자	탄종	명칭	사격발수	사거리(km)	발사 장소
1	2025.1.6	IRBM	화성-16나 개량형 추정	1	1,100	평양시
2	2025.1.14	SRBM	KN-25 추정	수발	250	자강도
3	2025.1.25	SLCM	불화살-3 31 개량형	수발	1,500	미상
4	2025.2.26	SLCM	화살-1형 추정	수발	1,587	미상
5	2025.3.10	CRBM	화성-11라 추정	수발	60~100	황해북도
6	2025.3.20	SAM	별찌-1-2형 or 개량형 지대공미사일	2		남포특별시
7	2025.4.28	HSM	초음속순항미사일(화살 계열 추정)	1		남포특별시
8	2025.5.8	SRBM	화성-11가(KN-23), KN-25	< 10	200~800	강원도
9	2025.5.15	AAM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독자개발형?)	수발		
10	2025.5.22	CM	순항미사일	2+		함경남도
11	2025.6.19	MRL	240mm 방사포(추정)	10+	수십km	평양시
12	2025.8.23	SAM	신형 지대공미사일	수발		남포특별시
13	2025.10.22	SRBM	HGV 탄두 장착 화성-11마 추정	2		평양시
14	2025.10.28	LACM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화살계열 추정)	수발		서해 해상
15	2025.11.1	MRL	240mm 방사포(추정)	수발	30	평안남도
16	2025.11.3	MRL	240mm 방사포(추정)	수발	40~60	평안남도
17	2025.11.7	SRBM	화성-11형(KN-23) 계열(추정)	1	700	평안북도

² 북한은 화성-11계열의 고체연료 추진체를 1단으로 기존의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활용되었던 활공체 형태 탄두를 결합하여 화성-11마를 만들었다. 화성-11마는 촘촘해지는 한국의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무기체계인데, 막상 시험발사에서는 극초음속 성격을 보이지 않아 한계가 역력한 것으로 보인다; “北, 극초음속 ‘화성-11마’ 시험발사한듯...韓방공망 무력화 의도,” 『연합뉴스』 (2025.10.23.); Vann H. Van Diepen, “It Is Autumn in North Korea, and the Missiles Are Changing. Are They Past Peak?” *38 North* (Nov. 4, 2025)

³ “북한, 열병식서 신형 ICBM 추정 ‘화성-20형’ 공개,” 『BBC 뉴스 코리아』 (2025.10.11.)

⁴ “Quick Take: Damaged North Korean Destroyer Could Be Ready for Ceremonial Relaunch”, *38 North* (June 12, 2025); “5000t을 풍선과 맨손으로... 北, 2주만에 구축함 바로 세웠다,” 『조선일보』 (2025.6.4.)

⁵ “Putin and Kim confirm for first time North Koreans fought for Russia in Ukraine war”, *The Guardian* (Apr 28, 2025)

⁶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노동신문』 (2025.10.11.)

⁷ 홍민,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주요 내용과 체계”,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3월호)

⁸ “김정은 트럼프 보란듯 핵잠 공개...푸틴엔 ‘파병 답례’ 독촉,” 『중앙일보』 (2025.3.10.)

⁹ H.I. Sutton, "Russian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Will Make North Korean Threat More Palpable", *38 North* (Nov 5, 2025)

¹⁰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K-152 '네르파'함은 2021년말 러시아로 반납했으며, 러시아 해군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 잠수함을 수리하는 대신 2023년경 해체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바로 이 함정에서 떼어낸 원자로 등 추진체계를 북한 전략원잠에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The Navy Command has proposed scrapping the damaged Nerpa submarine", *TASS* (Nov. 17, 2023)

¹¹ "North Korea's failed satellite launches may signal potential technological Shift", *Stars and Stripes* (Jan 30, 2025)

¹²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하시었다," 『노동신문』 (2025.3.27.)

¹³ "Russia Gives North Korea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Report," *Newsweek* (Sep. 18, 2025)

¹⁴ "北, 세번째 신형 구축함 건조 결의...'매해 두척' 강행하나," 『동아일보』 (2025.7.22.)

¹⁵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승인'하에 오랜 숙원과제이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합의했다. 이러한 내용은 정상회담 당시의 대화에서 거론된 이후 한미정상회담 공동자료(Joint Fact Sheet)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 13, 2025)

¹⁶ SOSUS는 음향감시체계(Sound Surveillance System)를 뜻하며, 원래 냉전시기 미 해군과 연방해양대기청(NOAA)이 소련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수중음향탐지장비들을 잠수함의 주요 경로에 설치하여 이동을 감시하는 수중조기경보체계였다; 최정민. 항만감시체계 개발동향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3호 (2024)